

안녕하십니까?  
지식 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9장

'부귀보다는 자신의 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벼슬을 대단히 추구했던 공자가

결국 스스로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격수양과 안빈낙도라고 하는  
삶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안회와 자공의 사례를 보면서

공자는 그 당시 대단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자공을

비교적 호되게 나무랐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고  
글자 그대로 단사포음(簞食瓢飮)

글자 그대로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서

한 표주박의 물과  
그다음에 한 소쿠리의 밥,

이 정도의 삶에 만족했던 안회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부와

또, 뭐 자공 같은 경우는

제후들에게도  
큰 지위를 많이 받았으니깐요.

그 귀함보다는 오히려 지위도 없고

빈하고 즉, 못살고  
그다음에 친한 안회를 평가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격수양을  
청빈에 있다고 믿었던 공자는

항상 부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편에서,

'의롭지 못하고 잘 살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부운(浮雲) 즉, 뜬구름만 같다.'

여기서 전제가 따르죠.

의롭지 못하고  
부(富)와 귀(貴) 하는 것

이것은 뜬구름과 같다.

공자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춘추시대 때니까 패권주의에서  
서로 간에 죽이고 죽는

또는 서로 간에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부유하고  
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보다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논어 뒷부분에 나오죠.

'위령공'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는 도(道)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속에 있지만

배우면 녹봉은 그 속에 있다.

군자는 도(道)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도(道),  
즉 공자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현의 도(道)  
즉, 형이상학적인 도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의(衣)와 식(食),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먹고 입는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녹봉  
이런 것들만 추구할 것인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군자는 항상 도(道)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공자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공자가 추구한  
삶의 축이 바로 군자다운 삶이었고

그 군자다운 삶은  
도(道)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부(富)와 귀(貴)에 대해서

'그것을 부와 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소인의 몫이고

집착하지 않는 삶은  
군자의 여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논어에서 보면  
'부(富)와 귀(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을 도(道)로써 얻지 아니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마디는 뭐냐 하면  
'빈(貧)과 천(賤)은

즉, 가난함과 천한 것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지만

그것을 도(道)로써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공자가 생각할 때  
도(道)로써 얻지 않은 부와 귀는

절대 자기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대부분 부(富)와 귀(貴)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도(道)를 추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왜?

공자가 말했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리(利)에 밝다'

즉,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러니까 군자는 보이지 않는  
의리를 추구하죠. 의(義)를 추구하죠.

그런데 소인은 눈에 보이는 토지, 재산,  
보이는 욕망, 욕구, 재물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군자와 소인의 나눔의 기준은

바로 의(義)를 대하고,  
리(利)를 대하는 시각의 문제다.

이것은 본인이  
부(富)와 귀(貴)를 추구할 것인가

또 빈(貧)과 천(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숙명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아마 직장인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군자와 소인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은 뭘니까?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군자는 덕을 추구하고  
군자회덕 소인회토(君子懷德 小人懷土)라.

군자는 덕(德)을 생각하고  
소인은 뭘을 생각한다?

토(土), 글자 그대로 땅입니다.  
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덕(德),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덕(德)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토(土)를 추구하느냐

이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공자가 봤을 때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건 옛날얘기고,  
지금은 덕(德)보다는

토(土)에 집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공자가 생각한 군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집착이나  
고집이 없어야 하는 건데

그 집착과 고집이 뭘까요?

바로 도(道)를 생각하느냐,  
의(義)를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토(土)를 생각하느냐  
즉, 땅이죠.

그다음에 부(富)와 귀(貴)를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결국은 부(富)와 귀(貴)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 없이  
처하는 인물이 되라는 것이

사실 공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 당시 춘추 시대 때는 불의를 통해서

부(富)와 귀(貴)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공자는 불의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가는

사실은 대단히 많은 집착이나

대단히 많은 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부(富)와 귀(貴)를 추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곡광이침지(曲肱而枕之)라는 말 아시죠?

즉, 무슨 말이나 하면  
'팔베개를 하고 눕는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거친 밥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그런 삶도

정말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저  
의롭지 못하면서 잘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공자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자처럼, 나는 급여 적고

그다음에 나에게 돌아오는  
부(富)와 귀(貴)가 적더라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초연해서

내가 자아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또 때로는  
연봉과 급여에 급급해서

그 연봉과 급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적성과 소신  
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삶과 직결된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여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공 같은 경우에는 빈(貧)과  
부(富)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왜?

자공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자공이 어느 날  
공자한테 자랑을 해요.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이무교(富而無驕).

말하자면, 사실  
앞에 있는 빈이무침(貧而無諂)

즉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고' 이 말은

자공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한 말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제가요 조금 부유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자공이 약간 자기를 추켜세우니까  
공자가 한마디를 딱 던지죠.

일침을 가합니다.

빈이락(貧而樂)하고  
부이호례(富而好禮)니라.

즉 '가난하지만 그것을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호례(好禮),

예를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했죠.

즉, 너는 아직 멀었다.

부유하면서 겨우 교만하지 않은 것에  
네가 만족한다면 그것은 잘못돼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례(好禮), 예를 좋아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공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낙담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의도는  
그만큼 자공의 삶 자체가

현실 세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어 가서 성인이 추구했던

도(道) 같은 그러한 삶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공자가 안회를 대단히  
칭찬했다고 얘기 했잖아요.

즉, 안회의 그  
단사포음(簞食瓢飲)의 태도

말하자면 정말 집에서 아주 소소한,  
일상의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을 대단히 힘들어할 텐데

안회는 오히려 그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빈낙도하면서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안회야말로 정말로 어질구나,  
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자가 생각했던 군자의 즐거움은  
분명히 성현의 도(道)를 추구하고

또 천명을 실천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소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고

재물을 갖추려고  
힘쓰는 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공자가 추구했던 그 삶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재물과 이익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문제로  
잘 나아가서 생활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만족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